완도군 소안도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추모제

2013년 부터 매년 영령들의 명복 기원

완도군 소안면희생자추모사업회는 지난 29일 소안도에서 한국전쟁 전후 학살된 민간인 희생자 250명 영령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추모제를 열었다.

항일의 섬, 완도군 소안도에서 해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30일 완도군에 따르면 소안면희생자추모사업회(회장 김광식)는 지난 29일 소안도에서 한국전쟁 전후 학살된 민간인 희생자 250명 영령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추모제를 열었다.

이날 추모식은 유족과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헌화분향, 비문낭독, 추모사, 추모시, 고유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소안도 민간인 희생자 학살은 지난 1949년 여름 소안지역 청·장년들이 해방후 반군정 집회와 단독선거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법적 절차도 없이 사살해 수장하는 국가폭력을 저지른 사건으로 한국전쟁 중에도 만행이 이어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10년 진실규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국가가 이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완도군 소안면 주민들은 민간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난 2013년 5월 성금을 모아 항일운동 기념공원에 희생자 추모비를 건립했으며 매년 이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김광식 소안면희생자추모사업회장은 "소안도 민간인 학살과 같은 국가폭력의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게 오랫동안 전해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 2017년 12월 '완도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다.

완도=김광수 기자

여수시, 남도바닷길 시티투어 내달부터 운행

순천 · 광양 · 보성 주요 관광지…매주 토·일·공휴일 운영

이순신광장~오동도~장도박물관~대한다원~순천만정원

여수시가 여수와 순천, 광양, 보성의 주요 관광지를 하루에 돌아볼 수 있는 남도바닷길 광역시티투어를 선보인다.

시에 따르면 남도바닷길 광역시티투어는 6월 2일 첫 운행을 시작으로 매주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 운행한다.

출발지는 여수 이순신광장이다. 이후 코스는 여수 오동도·이순신 전망대, 광양 장도박물관, 보성 대한다원·태백산맥문학관, 순천만 국가정원이다.

탑승시간은 이순신광장에서 9시 30분이다. 엑스포역에서도 탑승이 가능한데 시간은 10시30분이다. 여수행 열차를 타고 여수엑스포역에 도착하는 관광객들은 곧바로 광역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남도를 돌아볼 수 있다.

광역시티투어의 1회 운행 정원은 40명이며 탑승장소인 이순신광장과 엑스포역에서 현장 발권이 가능하다.

요금은 성인 8000원, 초중고 학생 2000원, 장애인·군인·경로우대자 4000원이다. 관광지별 입장료와 식사비는 탑승자가 별도 부담해야 한다.

이번 광역시티투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여수~순천~광양~보성을 잇는 남도바닷길이 선정되며 추진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지역 관광을 확대하기 위해 인근 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시티투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의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는 남도바닷길 포함 평화안보 코스(인천·파주·수원·화성), 백제문화 코스(대전·공주·부여·익산), 남도 맛 기행 코스(광주·목포·담양·나주), 자연치유 코스(단양·제천·충주·영월), 선비문화 코스(대구·안동·영주·문경), 해돋이 역사기행 코스(울산·경주·포항), 평창로드 코스(평창·강릉·속초·정선), 섬과 바람 코스(거제·통영·남해·부산), 시간여행 코스(전주·군산·부안·고창) 등이 선정됐다.

여수=송기홍 기자

장흥군, 귀농인 안정적 정착 위한 영농교육 '박차'

농기계 기본교육 · 농업마케팅 · 경영기법 등 구성

장흥군은 장흥군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기본이론 및 실습 정비교육을 본격 실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19일 개강해 8월까지 귀농인과 귀농예정자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교육은 농촌생활적응과 영농기술 교육으로 농산업 기초교육, 작물, 원예, 과수, 특용작물, 농기계 안전이용, 귀농·귀촌 우수사례 및 전문 농업기술 등으로 구성됐다.

이 밖에도 농업마케팅과 경영기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해 성공적인 농촌정착을 돕고 있다.

군은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농업기술 정보 제공으로 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귀농귀촌에 대한 사전 준비로 귀농 성공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영모 장흥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귀농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농업 현실을 바로 이해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장흥군에서는 최대한 영농정보를 제공하고 귀농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로 성공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장흥=김흥필 기자

무안군, 호남국제관광박람회서 무안 홍보관 운영

내달 3일까지 DJ센터서

무안군은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4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호남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제22회 무안연꽃축제 및 무안황토갯벌축제, 주요 관광지 등을 홍보하는 무안군 홍보관을 운영한다.

전라도방문의해를 맞아 호남권 내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관광홍보관, 여행상품관, 특산품관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무안군은 연이·근이 마스코트 인형을 배치해 여행지도와 관광 리플릿 등을 나눠주며 연꽃축제 및 갯벌축제, 새롭게 개장한 밀리터리테마파크 및 무안황토갯벌랜드 등 무안의 주요 관광지 홍보하고 지역 특산물인 황토랑쌀을 활용한 기념품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해 무안군 농·특산물의 우수함을 알린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퀴즈 맞추기를 통해 무안을 알리고, '무안관광문화어플 다운 이벤트'를 진행하여 어플 다운로드시 제22회 무안연꽃축제 아이쿨존(i-cool zone) 입장권을 제공한다.

또한, 도 및 11개 시·군이 참여하는 공동 홍보 이벤트에 참여하여 룰렛돌리기, 퀴즈, 퍼포먼스 등 관광객 참여형 공동 홍보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호남권에서 최초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 참여하여 차별화되고 전략적인 홍보를 통해 무안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금년 22회를 맞는 무안연꽃축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풍성한 축제가 되어 신규 관광객 창출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무안=이가성 기자

진도 다시래기 공개발표회 내달 2일 개최

국가무형문화재 제81호 진도 다시래기의 공개 발표회가 오는 6월 2일(토) 오후 3시 30분 진도군 무형문화재전수관에서 열린다.

진도 다시래기는 진도지방에서 초상이 났을 때, 특히 타고난 수명을 다 누리며 행복하게 살다 죽은 사람의 초상일 경우 동네 상여꾼들이 상제를 위로하고 죽은 자의 극락왕생을 축원하기 위해 상주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면서 노는 민속극으로 지난 1985년 2월에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과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재단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공개 발표회는 진도다시래기 보유자를 비롯한 전수자들이 매년 1회씩 다시래기 전체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

관람문의는 진도군 무형문화재전수관(542-4717).

진도=조상용 기자